

CJ, 중국에서 라이신 10만톤 증설

4억달러 투자 쓰레오닌 5만톤 공장도 ... 세계시장 점유율 25% 목표

CJ제일제당은 6월18일 중국 선양에서 사료용 아미노산 라이신(Lysine)과 쓰레오닌(Threonine), 식품 조미소재 핵산을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고 6월19일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사업은 미생물이나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을 만들어내는 분야로 식품조미 소재인 핵산,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 등을 생산한다.

총 4억달러를 투자하며 2012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으로 라이신 10만톤, 쓰레오닌 5만톤, 핵산 3000톤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의 중국 생산능력은 라이신 20만톤, 쓰레오닌 5만톤, 핵산 1만3000톤으로 늘어난다.

선양공장은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고 기존 인도네시아 및 중국 공장의 인프라도 활용해 세계 최저수준의 제조원가와 최고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중국시장 공략의 발판 역할도 하게 된다.

CJ제일제당은 선양공장이 가동하면 중국 GBT, 일본 Ajinomoto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라이신 시장에서 25% 이상의 점유율로 1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지속적으로 라이신 투자를 늘려 2013년까지 총 57만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시장 점유율 27%를 달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핵산 역시 2012년 선양공장 완공과 기존 인도네시아 줌방 공장 증산으로 2013년까지 총 생산량 2만3800톤, 시장점유율 42%로 Ajinomoto와의 격차를 10%p 벌려 1위를 굳히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매년 20% 가까운 성장을 지속해 2010년 사상 첫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바이오 사업을 차세대 캐시카우(Cash Cow)로 보고 2013년 매출 2조원,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0>